

‘제3시대 빅텐트’ 문 연 국민의당

박지원 “손학규·정운찬 이달내 통합...김종인과도 대화”

반기문과 연대 선그어...민주 “빅텐트 민심에 날아갈 것”

아권의 제3시대·빅텐트 구성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과 정권교체를 위한 ‘텐트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우 함께한다. 안 한다고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개헌과 대선정국에 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손 의장 등과 통합 및 연대를 할 경우 당명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박 대표는 손 의장 측의 당명 변경 요구에 대해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감동하겠느냐”라며 “손 의장도 강진도 굽어서 2년간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들어 나와 국민을 위한 회생을 보여주는데, 우리

당도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빅텐트에 대선 후보를 받아들이고, 경선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나부터 던지겠다는 자세로 이야기했다. 잘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가 국민의당에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안철수·전정배 전 대표와 상의해 공정한 필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경선률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손 의장 및 정 전 총리와 2월 내로 통합 및 연대 작업을 완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그럴 것”이라며 “지금은 다 뭉뚱피, 살바싸움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탄핵 인용 전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것이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명 개정이 새누리당도 하려는 데 국민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느냐”라며 “거기(손 의장 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논의는 해야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박 대표는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측이 추진하는 제3시대와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면서 “출발도 다르고 텐트의 종류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정체성이 비슷한 분들 및 세력과 빅텐트를 쳐서 국민의당에서 강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고 반 전 총장은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는 통합 텐트를 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아권 성향의 ‘빅텐트론’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견제구를 날리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빅텐트는 민심에 의해 기동을 박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텐트론은 필연적으로 새누리당과 손을 잡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체성이 다르지 않은 분들이 모여 기득권을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이합집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즉각 반발을 불러들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개혁의 빅텐트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테니, 바람에 날아갈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의장도 “추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 패권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권교체는 광주정신의 명령”

이재명 후보등록 첫날 광주방문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은 곧바로 광주를 찾아 “광주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시장은 “정권교체는 광주정신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5·18은 대학생 이재명을 투사로 만들어준 사회적 어머니”라며 광주와 전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그는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킨 ‘광주의 기적’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당내 경선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 시장은 “진정한 변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출발은 광주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와 달리 행동하는 소수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아권의 적극적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통 민주세력인 아권 출신으로 만들어진 정치세력이 생겨난다면 단일대오를 만들어 반드시 이겨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며 당내 경선 승리 이후를 내다봤다.

다만, 제3시대로 거론되는 정치세력과 연대는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시장은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광주를 찾았고,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에서 무료 배식봉사를 하고, 양동시장 방문 등 광복행보를 보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18은 이재명을 투사로 만들어준 어머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분향 후 무릎을 꿇은 채 묵념하고 있다.

안철수, 중도·범여권 끌어안기

오늘부터 TK·PK 방문...경남권 反文정서 공략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본격적인 영남 표심 공략에 나선다. 1일 대구·경북지역(TK)을 시작으로 부산·경남지역(PK)을 각각 방문한다.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이며 전통적 지지층 잡기에 집중하던 안 전 대표가 이제는 영남권에 포진한 중도층과 범여권 진영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다.

일차적 공략 대상은 보수의 아성 격인

TK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 이후 뚜렷한 대안주자를 찾지 못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토 정서가 큰 지역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안 전 대표는 내주에는 PK지역을 찾아 영남권 민심에 대한 구애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PK지역은 자신의 고향이면서도 문 전 대표가 견고한 세를 형성하고 있어 중요한 ‘타깃 지역’이다.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영남권 끌어안기는 문 전 대표와의 일대일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포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최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위원회 의장 및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연대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중도 및 합리적 보수층에 대한 구애 행보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의장도 중도 이미지가 강한 데다, 동반성장장을 꾸준히 주장해온 정 전 총리도 이미지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가 최근 미래 대비를 강조하는 포석에는 중도 및 합리적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셈법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반기문 기로에 선 ‘반반행보’

“정치 세력화 도모 정체성 모호” 여야 비판

모든 정당·정파 초월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적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일까지 ‘정치 지도자’들과의 1차 연세 회동을 마친 반 전 총장으로서 정치적 좌표를 예전보다 뚜렷이 설정해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기성 정당에 속하지 않은 ‘중간지대’에 머무르면서 개헌과 패권주의의 적결을 기지로 여야 정치인들을 아우르겠다는 구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려면 이 같은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정치적 연대 대상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일제히 그에게 피아(彼我) 식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반 전 총장의 결단만 남은 셈이어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캠프 진용을 꾸리고 사무실도 여의도로 확대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측은 진용을 재 정비하고 개헌 협의체 구성을 고리로 최종 정착지

결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1~2일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연세 방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보수후보’로 나서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1일 대선 전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수명을 다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른정당 경선 유승민·남경필 2파전

원희룡 불출마 선언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지난 3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선후보 경선이 일단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이와 “전환기에 제주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제주 현안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유 의원과 남 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로서 한자씩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됐지만 오 전 시장은 지난 13일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 정치인이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할 중시축인 건

강한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제·안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나름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보수 정치의 젊은 기수로서 원 지사가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남 지사도 “안타깝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야는 1일 한달 간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1일 오후 회동을 열어 이 같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1일 오후 개회식을 개최한 뒤

2일 더불어민주당,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실시 일정의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1일 오후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 (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학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 (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 (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 (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원 (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담양군 남면 학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온열뜸, 아쿠뎀,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특가 48,000원

문의처 : (02)2231-3000 ■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 광주지회 062)224-5343 ■ 전남지회 062)525-0001 ■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한국의 180여 지회들 이용 바랍니다.